

# 관상학을 이용한 캐릭터 표현방법에 대한 연구

## Research about character expression method that use physiognomy

김민호

전북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Kim, Min-Ho

Dept. of Industrial Design, Chonbuk Univ

정성환

전북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Chung, Sung-Whan

Dept. of Industrial Design, Chonbuk Univ

• Key words: Character, Physiognomy

### 1. 서론

캐릭터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있어 얼굴의 효과적인 구성에 표정연구는 성공적인 캐릭터 제작의 절대적인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캐릭터의 얼굴표정은 대부분 디자이너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관점으로서는 전부는 아니다.

본 연구는 캐릭터 얼굴의 구성과 형태를 관상학적 접근을 통해 의도된 성격과 상관관계를 이루는가 규명하고 상관관계를 갖는다면, 구체적인 활용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되었다.

하지만 관상학 접근을 통해 상관관계가 미약하더라도 다른 관점에서 유의미성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최종목적은 캐릭터의 성격이나 구성, 특성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분석하여 초기 캐릭터 개발 시 스토리(story)나 디자이너의 의도에 적합한 인물을 관상을 활용하여 적합한 표현요소들을 조합하고 배치하여 캐릭터 개발하는데 있어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보조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한사항

#### 2-1. 연구내용

관상학은 몸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그 변화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 '남'의 모습 판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덕철학, 심리학, 사회학, 나아가 미학을 아우르는 분야이며 관상학의 역사는 사람들이 이해하던 방식 즉 세계관의 역사를 보여주기도 한다. 관상학에 대한 담론들은 각 시기의 지적, 과학적 패러다임과 상호 영향을 끼치며, 때로는 순응하고 때로는 반항하는 역학관계를 보여준다.<sup>1)</sup>

이와 같이 관상학적 관점에서 캐릭터의 이미지는 그 자신보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형성될 수 있다는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캐릭터의 얼굴의 이미지와 표정의 역할은 캐릭터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매개체이므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위치, 간격, 크기, 구조, 빛 등 이미지나 표정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도 중요한 연구내용이다.

이들의 관계가 관상학과 상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스테레오타입을 형성할 수 있는가를 본 연구의 목표이다. 구체적인 스

테레오타입을 발견해낼 수 있다면 시각언어를 구성할 때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관상학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테레오타입을 근거로 하여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성격을 대입시켜 공통점 및 다른점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활용가능성을 살펴본다.

#### 2-2. 연구방법

관상학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몇 가지의 스테레오타입을 추출하고 이를 규정하고 있는 이미지와 캐릭터 이미지와의 편차를 연구한다. 캐릭터 샘플은 대중적으로 인지도 및 선호도를 표준으로 추출한다.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려한다.

#### 2-3. 제한사항 및 한계성

캐릭터는 과장된 얼굴형태와 라인의 강약에 따라 느껴지는 형태가 각각 다를 수 있다. 또한 팬시캐릭터나 상업적 목적을 알리기 위한 캐릭터는 연구 포함대상에서 제외 시켰다. 스토리가 있는 애니메이션 등장인물의 얼굴 형태 및 성격을 조사 분석하였다.

### 3. 본론

#### 3-1. 동서양의 관상학의(觀相學) 개념과 범주

인류의 역사에서 관상학이 정확히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문명의 발생과 더불어 관상이 생겨난 것으로 볼수 있다. 이집트, 인디아, 중국 등 고대문명권 대부분에서 사람의 생김새에 관한 이야기와 우화들이 수없이 발견되기 때문이다.<sup>2)</sup> 유럽 문명권에서 광상은 적어도 기원전 2000년경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메소포타미아 유적에서 다음과 같은 내얼굴의 생김새의 특징과 용이 새겨져 있는 서판들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일종의 관상학 핸드북의 한 부분으로 밝혀졌다. 동서양의 관상의 차이점은 근세유럽의 관상학은 18세기 경부터 해부학적 두골의 연구가 진행된 탓도 있어 골상학의 스타일을 취하면서 발전했으며, 동양의 관상학은 얼굴 전체와 이마, 눈썹, 코, 눈, 귀, 입의 모양, 체형, 행위, 버릇 등을 종합으로 사람을 판단하여 아는 방법으로 발전하였다.

1)설혜음, 서양의 관상학 그 긴그림자, 한길사, 2002, pp32

2)Siegfried Frey, "Lavater, Lichtenberg, and the Suggestive Power of the Human Face," in Eills Shookman, ed., The Faces of Physiognomy :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to Johann Caspar. Columbia: Sc., 1993. p.63

오늘날의 관상학은 동양의 것을 토대로 하고 서양의 골상학도 가미해서 고도로 발전되어 왔다.

### 3-1. 관상학의(觀相學)에서 본 캐릭터의 표정이미지와 성격에 대한 분석

관상(觀相)에서 얼굴의 정면(正面)을 양면(兩面)이라고 하여 사회를 향한 공(公)적인 얼굴을 나타낸다고 본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과 의지력, 지성, 감성 등을 나타내며 사회적인 인기나 명성, 지위등이 나타나는 곳이다. 또 정면의 얼굴을 세밀히 관찰하면 그 순간 순간의 마음의 움직임을 알 수 있다.<sup>3)</sup>

#### 기본적 분석방법

캐릭터의 형태 표현은 다양한 표현형태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다양한 표현형태 중 관상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형태 3가지로 분류하여 그 성격과 특색을 조사하였다.

#### 1). 지적(知的)인 정신형(精神型)

##### 가. 얼굴생김새의 특징

머리가 크고 지능이 우수하며 몸이 전체적으로 날씬하고 가늘프다. 얼굴은 역삼각형 또는 계란형이며 눈, 코 등의 밸런스가 잡혀 미남, 미녀 중에 많다. 입은 비교적 작으며 입술은 얇은 편이나 전체적으로 아무진 인상을 주고 있다. 턱을 보면 살집이 얇고, 가늘고 뾰족하다. 포용력과 지도력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 나. 성격의 특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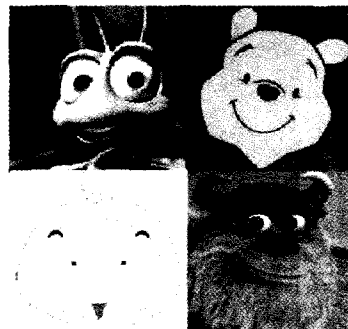
감수성이 예민해 신경질적이면서도 미적 감각이 뛰어나다. 지식욕이 왕성하며 이론적인 치밀한 사고력을 가지고 있다. 성격은 착실하고 친절하지만 자존심이 강하고 이기적이며 어두운 분위기가 있어서 사교성이 부족하지만 독창성, 선견성(先見性), 직감력, 비판력, 판단력, 결단력, 상상력, 기억력 등이 우수하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면이 많다.



#### 2). 정적(情的)인 지방형(脂肪型)

##### 가. 얼굴생김새의 특징

얼굴은 둥근형이며 이마에 생기가 있으면서 둥글고 넓어서 좋고 눈은 크고 둥글며 활발한 성격이다. 볼은 살집이 좋아서 복슬복슬하고 둥글면서 친절미가 있다. 턱은 둥글고 넓은



면서 살집이 두터워 포용력을 가지고 있다.

##### 나. 성격특색

명랑하고 타인에게 불임성이 있으며 노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 많다. 협조성이 뛰어나며 온후한 성격이므로 누구든지 따른다. 정열적인 기본파로 실증을 잘내는 성급한 면도 있다. 대중대중하는 성격으로 자잘한 일에는 신경을 안쓰는 편이며 대중앞에 나설 수 있는 대범함과 포용력이 있다. 살이 찌 있는 탓인지 육체적인 고통에는 약하다. 또한 겁이 많고 경계심도 많은 편이다.

#### 3). 의지적(意志的) 근골형(筋骨型)

##### 가. 얼굴생김새의 특징

골격이 굵고 체격이 잡힌 체형으로 얼굴의 뼈가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다. 입은 사각형으로 크고 단단히 조여들어 있고, 상하 입술은 보통 두꺼워서 의지가 강함을 나타내고 있다. 턱은 넓고 뼈가 발달되어 살집이 얇으며 고집이 강한 성격을 나타낸다.

##### 나. 성격특색

프라이드가 높고 용기가 있어서 투쟁심이 넘치며 자기 주장이 아주 세고 강하다. 적극성이 있고 인내력도 강하지만 말수가 적은 편이고 표현력이 없어 사교성이 부족하다. 한편 책임감과 실행력이 있다.

의지로써 목표를 완수하는 끈기있는 성격이다.



### 3-2. 관상학의(觀相學)에서 본 캐릭터의 표정이미지와 성격에 대한 분석 대한 연구 결과

다양한 애니메이션의 캐릭터의 인물과 성격을 관상학적 관점으로 분석한 결과 몇가지 오차는 있어지만 디자이너가 의도한 캐릭터의 성격과 이미지는 유사한 결과로 나왔다.

#### 4. 결론

세계의 애니메이션 시장은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1년 자동차 수출보다 캐릭터 한편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더 많다. 하지만 연구진행과정에서 세계적인 우리 캐릭터가 없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었다. 다양한 소재, 스토리가 중요하지만 캐릭터의 성격의 정확히 규명하고 그 성격에 맞는 캐릭터 개발 또한 중요하다 생각된다. 그러므로 초기 캐릭터 스토리 개발시에 스토리에 적합한 표현요소를 조합하고 배치하여 캐릭터 개발하는데 있어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보조적 역할이 기대된다. 관상을 통한 보다 체계적인 테이터베이스와 지속적으로 연구가 계속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3) 박일주, 관상을 알면 팔자가 보인다, 좋은글, 1994, pp39